

광주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래 유니콘 성장 ‘날갯짓’

AI사업단 ‘AI 파트너십 데이’ 성료
7년 미만 창업기업 IR 피칭·상담
투자사, 성장성 모색...제품 시연
“글로벌 AI산업 중심 자리매김 최선”

광주에서 미래 유니콘 기업 도약을 꿈꾸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 만남의 장이 펼쳐졌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1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홀에서 AI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의 만남의 장인 ‘AI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AI 파트너십 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사업단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로, AI 스타트업과 사업모델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어포나티㈜, ㈜젠데이터, ㈜배터플라이, ㈜덴탈버스, ㈜북엔드, ㈜쑤, ㈜넥스트케이, ㈜비틀, ㈜인포플라, ㈜소프트스퀘어드 등 10개의 AI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사업모델 검증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투자유치 멘토링을 통해 IR 역량을 강화한 후 피칭에 나섰다.

스타트업의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40개의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AI 기업 투자유치설명회(IR) ‘AI 파트너십 데이’에 참석한 오상진 AI 사업단장, AI 기업, 투자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이터(AC)가 행사장을 찾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협업과 투자를 논의했다. 특히 팁스(TIPS) 운영사들도 다수 참석해 스타트업들에게 더 큰 기회 of the 장이 됐다.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등을 받아 성장한 ㈜젠데이터, ㈜배터플라이, ㈜덴탈버스 등이 주목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

다.

행사장에서는 AI 스타트업들의 제품 전시도 함께 진행돼 투자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4060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셜 기반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한국어 문장 교정 AI 솔루션, 실시간 이상행위 분석 통합 플랫폼, AI 기반 E-모빌리티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AI 스타트업들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AI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AI 파트너십 데이’는 AI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진 AI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AI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AI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광주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롯데마트, ‘햇꽃게’ 판매

롯데마트가 22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첫 어획한 신선한 햇꽃게를 100g 당 800원대에 선보인다. 이는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2024년 수산대전 20% 할인과 함께 행사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10% 혜택을 제공한 가격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햇꽃게는 지난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의 금어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 21일부터 어획한 신선한 물량이다.

롯데마트 제공

기아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 즉시 문자 발송”

고객 불안감 해소 종합지원책 마련
안심점검 서비스 등 기본점검 강화

기아가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감지한 배터리 이상 징후를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운영한다.

기아는 최신 BMS의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적용으로 이상 징후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BMS는 필요한 안전 제어를 수행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입고 점검, 긴급 출동을 안내한다.

기아는 BMS 사전진단 이상 징후 감지를 포함해 ‘전기차 고객 케어방안’을 종합 시행하며 전기차 고객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아는 고전압배터리 상태 진단을

포함한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고전압배터리의 상태, 수냉각 시스템, 고장진단 및 외부손상 등을 포함한 총 9가지 중요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 중으로,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긴급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는 전국 A/S 네트워크를 방문해 점검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배터리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배터리팩 교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아는 고객들의 장기적인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와 관련한 ‘멤버스 기본점검’ (구 정기점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멤버스 기본점검은 차량 구입 후 1~8년 차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무상점검으로, 전기차 고객의 경우 고전압배터리 등의 차량점검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고전압배터리, 모터 냉각수, 고전압 와이어링 등의 항목을 점검받을 수 있으며, 연차별 점검 항목은 상이하다. 기아는 기본점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배터리 성능 상태에 대해 점검 후 진단 리포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아는 최신의 BMS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을 전 차종에 조기 적용할 계획이다. BMS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정밀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기아는 순간 및 미세 단락 감지 기술을 신규 판매 차량에 적용하는 한편, 기 판매된 전기차까지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을 연말까지 완료해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

동 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응해 11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당 164원, 경유 1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광주은행, 의료 전문직 자영업자 맞춤형 상품 출시

개업 의사·약사 ‘메디컬파트너통장’
수수료 면제·금리 혜택·환율 우대

광주은행은 의료 전문직 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입출금통장 ‘메디컬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메디컬파트너통장’은 개업 의사 또는 개업 약사를 가입 대상(1인 1계좌)으로 하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매월 말 기준 이통장에 의료보험급여(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현물급여)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존재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부터 금리 혜택, 환율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우대서비스는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ATM) 현금출금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통지) 수수료 면제 △외국환 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및 당발송금환율(USD, EUR, JPY 限) 스프레드 50% 우대가 있다.

또한 일별 최종잔액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 지난 20일 기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01%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50%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0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유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박문수 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신규 의료전문직 자영업자 고객의 거래장벽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을 통해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